



남성성의 탈자연화와 퀴어 역사기술

: 허윤, 『남성성의 각본들』, 오월의봄, 2021

백종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여인(女人)이라는 말이 있다. 여인의 사전적 의미는 “어른이 된 여자”다. 그러나 ‘어른이 된 남자’를 가리키는 낱말은 남인(男人)이 아니다. 남인이라는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을 인간의 보편으로 상상해 온 장구한 역사는 여인이라는 유표화된(marked) 단어에 선명히 아로새겨져 있다. 남성이 오랫동안 인간의 기본값이자 보편형으로서 지위를 점유해 온 탓에, ‘인간(the man)’이 만들어 낸 지식이나 제도가 명백히 젠더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¹ 예컨대 한국 문학사가 주로 이성애자 남성의 위치에서 생산된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²으로서 “특정하게 정향된 앎과 감수성을 정당한 것으로 생산·유포·공유하는 제도”³라는 사실은 은폐되어 있다. 그러나 신시아 인로(Cynthia Enloe)가 『바나나, 해변, 그리고 군사기지(Bananas, Beaches and Bases)』에서 썼듯 가장 젠더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국제정치를 작동시키는 핵심 원리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둘러싼 특정한 젠더 질서이며, 그런 의미에서 “젠더는 세상을 돌아가게 만든다.”⁴ 페미니즘 관점에 입각한 남성성 연구는 이처럼 세계를 움직이고 현실을 직조하는 남성성/여성성이 남자 혹은 여자의 생물학적 본성에서 유래하는 ‘자연스러운’ 특성이 아니라는 점, 즉 남성성/여성성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생산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10년대 이후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남성성 연구의 자장 안에서 산출된 허운의 『남성성의 각본들』 역시 “근대적 인간의 보편값”이자 “근대성의 표준”⁵이었던 남성을 역사화함으로써 한국 문학 및 한국 사회의 남성성을 탈자연화하려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성의 각본들』은 래윈 코넬(Raewyn Connell)이 주조한 ‘헤게모니적 남성성’ 개념을 주요하게 원용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복수의 남

1 R. W. 코넬, 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19쪽.

2 Donna Haraway, “Situated Knowledges,” *Feminist Studies* 14(3), Feminist Studies, Inc., 1988.

3 백종륜, 「한국, 퀴어 문학, 역사: ‘한국 퀴어 문학사’를 상상하기」, 『여/성이론』 제41호, 여이연, 2019, 155쪽.

4 신시아 인로, 권인숙 역, 『바나나, 해변, 그리고 군사기지』, 청년사, 2011, 17-42쪽.

5 허운, 『남성성의 각본들』, 오월의봄, 2021, 7-8쪽. 이하에서 이 책을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

성성들 간의 경합을 거쳐 그 시대의 제(諸) 조건 속에서 가부장제를 수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특정 판본의 남성성이 당대 사회의 젠더 관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쥐게 되고, 다른 남성성들은 그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종속되거나 주변화되거나 혹은 그것과 공모하는 관계를 맺게 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⁶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초역사적/초문화적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러 남성성들 사이의 경합을 통해 계속해서 구성되고 또 대체된다는 코넬의 주장은 현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떠받치고 있는 가부장제가 하나의 “역사적 구조”이며 따라서 저항과 변화를 누적시키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사라질 것”이라는 정치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⁷ 바로 이것이 『남성성의 각본들』이 한국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탈자연화하고 그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남성성은 분명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젠더 질서의 전면적 재편이 가능해짐을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남성성의 각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정에서 『남성성의 각본들』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균열과 틈새를 드러내는 ‘귀어한’ 장면들에 주목하는 것 역시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 주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남성성의 각본들』은 해방기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남성성들의 역사에 주목한다. 이때 ‘형제들의 공동체’는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 기획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된다. 책의 논지에 따르면, 근대 시민사회 및 민족국가의 출현은 기존 질서를 상징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들이 형제애(fraternity)를 기반으로 형성한 ‘남성동성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저자는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에게는 “죽일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즉 조선이라는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되 그 아버지를 죽인 것은 조선의 아들들이 아니라 제국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 남성 청년들이 “아버지와 함께 거세”되었다고 주장한다(24-25). 해방은 바로 이 식민지의 “거세된 남성성”으로부터 벗어나 남성성을 재건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인식되

6 R. W. 코넬, 앞의 책, 123-124쪽.

7 위의 책, 344쪽.

있고, 청년은 해방된 조국을 이끌어 나갈 주체로 호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방공간에 나타난 조선민족청년단(족청)이나 서북청년단과 같은 반공 우익 청년 단체들은 호전적/폭력적 남성성을 체현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경찰력 및 군사력 강화와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 이외의 무장 조직을 일절 금”(53)하고 모든 무력(武力)이 국가로 흡수·귀속된 뒤에도 이 호전적/폭력적 남성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군사주의적 남성성으로 통합되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호전적 남성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총력전을 거치면서 “군사주의적 남성성은 현대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38).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남성들 사이의 형제애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서의 호전적/폭력적 남성성과 군사주의적 남성성을 지탱하는 토대로 줄곧 기능했다.

이러한 형제들의 공동체와 그에 기반을 둔 군사주의적 남성성은 서로 뒤엎힌 두 가지 측면에서 여성(성)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 연대(male bonding)를 구축하는 과정에 개재되어 있는 여성혐오에 관한 측면이다. 해방 이후 여성은 ‘건강한’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튼튼한 아들을 낳아 부계 혈통을 잇고 국력 강화와 국가 재건에 일조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시기에는 전선에 있는 남성 전투원들을 대신해 후방에서 가족의 삶을 책임짐으로써 ‘통일독립전쟁’ 승리에 이바지해야 했다. 즉 민족국가 건설의 ‘주역’인 모범적 남성(성)을 보조하는 짝패로서 모범적 여성(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와 맞물려 모범적 여성성에서 이탈한 여성들은 곧바로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저자가 이브 코소프스키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과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의 논의를 빌려 설명하듯이 여성 거래를 통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남성 연대는 여성을 철저하게 객체화하는 여성혐오에 기초해 있다. “1950년대는 남성들 사이의 연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여성혐오가 끈질기게 동원된 시기였다.”(197) 냉전 질서 아래에서 국가 안보의 유지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양공주’에 대한 혐오는 여성 거래를 통한 남한과 미국 사이의 계약 관계와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가림막으로 기능했다. 또한 미국에 의한 신식민 상황 아래에서 훼손된 남성성을 대리보충하기 위해 남성동성사회는 미국식 자유를 표상한

다고 여겨지는 ‘자유부인’에 대한 혐오를 반복적으로 표출했다. 아프레길, 양공주, 자유부인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혐오는 특정 존재를 ‘비국민’으로 낙인찍음으로써 ‘국민’을 발명해 내는 기제를 보여 준다. 이러한 기제는 병역법과 경범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정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여장남자’를 비롯한 퀴어들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했다.

이처럼 ‘가짜 국민 만들기’를 경유한 ‘진짜 국민 만들기’가 1950년대 내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폐색되어 있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전쟁에 나간 남성 군인들이 ‘명예로운’ 군사주의적 남성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죽거나 부상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남성성을 훼손당하게 된다는 모순은 “전쟁이 젠더 규범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규범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점”(168)을 드러낸다. 『남성성의 각본들』은 ‘현실’과 ‘규범’ 사이에 가로놓인 이 사이공간에서 다양한 퀴어 실천들이 돌출한다고 보는 듯하다. 예를 들어, 1950년대의 여성국극은 무대 위에서 여자 남성성(female masculinity)을 ‘수행’함으로써 이원 섹스/젠더의 안정된 일치를 가정하는 젠더 규범을 의문에 부치고, 남자의 남성성들과 헤게모니 경합을 벌인다. 손창섭의 전후 소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수행하지 않는 남성, 즉 민족국가 건설의 토대로 여겨졌던 이성애 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 자체를 거부하는 남성의 ‘젠더 비수행(undoing gender)’(180)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로까지 이어진다. 1960년대 반공개발독재체제는 “박정희라는 절대적 가부장을 중심으로 남성성을 위계화”(261)하는 권위주의적인 초남성적(hypermasculine) 사회였다. 1960년대 대중서사들은 이러한 남성성의 위계화에 따른 종속적·주변적 남성성의 소외를 재현하면서 ‘퀴어한’ 요소들을 담아냈다. 예컨대 문윤성의 SF소설 『완전사회』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 위계화”에 의해 중국에는 “여성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274)를 오직 여성(진성)으로만 이루어진 “성차 없는 디스토피아”(268)에서 161년 만에 깨어난 남한 청년의 형상을 통해 드러낸다. 또한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생계부양자로서의 초남성성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1960년대에 쏟아져 나온 일련의 여장남자 코미디 영화들은 ‘남성성의 위기’ 상황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남성동성사회의 성애적 측면을 노출하는 동시에, ‘비남성’의 목소리로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비판·풍

자하기도 했다(이 해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것이다).

지금까지 간략히 요약한 논의들을 통과해 『남성성의 각본들』은, 1960~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 맞서 “비판적 지성의 역할”(260)을 자임했던 한국 문학의 리얼리즘이 “사라지는 매개체”로서 여성적인 것”(346)을 동원해 남성/민중 주체의 성장이나 내면성 획득을 기도했다는 분석으로 나아간다. “남성 지식인, 노동자, 농민의 세계는 리얼리즘 문학”으로 “여공과 호스티스의 세계는 대중문학으로”(260) 각각 배치되었다는 저자의 지적은 리얼리즘이 “마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미학적 판단 기준에 근거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한국의 리얼리즘 문학을 판단하는 주요 미학적 기준은 젠더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356). 이는 “남성성 자체가 리얼리즘의 다른 이름이었”(189)음을, 다시 말해 한국 문학사가 결코 몰젠더적(gender-blind)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남성성의 각본들』은 이렇듯 젠더화된 한국 문학사가 비가시화했던 ‘비남성’ 주체들을 부조(浮彫)하고 그 ‘사라진’ 목소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듣기의 윤리”⁸를 실천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가십과 사건과 범죄를 경유함으로써만 간신히 기록될 수 있었던 위반과 일탈의 흔적들을 더듬어 퀴어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세밀한 독해(133), 서사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과 틈새의 징후를 정확히 포착해 퀴어한 요소를 복원하는 섬세한 독해의 실천을 제안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를테면 여장남자 코미디 영화 중 하나인 「남자는 절개 여자는 뱃장」을 독해할 때, 여성 거래를 통한 남성 공동체로의 편입과 남성 주체의 성장이라는 서사적 결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러한 여성 거래를 통해 은폐되는 동성사회적(homosocial) 남성 연대의 동성애적(homosexual) 요소를 밝히 드러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306-307).

아래에서 나는 더 정치한 퀴어(문학)사를 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세밀하고 섬세한 독해의 태도를 염두에 두면서 『남성성의 각본들』에 몇 가지 ‘사소한’ 질문들을 제기해 보려 한다. 질문을 주고받는 행위 속에서 보다 주밀한 한국 남성성의

8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제17호, 한국여성철학회, 2012, 53-56쪽 참조.

역사와 퀴어 문학의 독법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A) 『남성성의 각본들』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남성성 각본의 원초적 장면”(14)으로 해석하고, 제1장을 통해 그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식민지 시기의 남성성들을 검토한다. 이 장에서 주목되는 분석 중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권력도 상속받지 못한 식민지 조선의 아들들은 남성동성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남성동성사회의 성애적 측면이 도리어 가시화”(28)되는데, 일본인 남성에게서 ‘실연’을 당한 후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조선인 유학생을 그린 이광수의 초기 소설들이 이를 잘 보여 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1920년대 이후 문학장에서 이러한 “남성동성사회의 성애적 측면”을 서사화한 작품이 상당히 드물게만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어려움은 제국의 남성성과의 길항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남성성들 사이의 경합 과정 그리고/또는 식민지 조선의 남성성이 여성성과 맺고 있던 유동적 관계를 살피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책의 부록으로 수록된 「연표」(364)에는 이광수의 「윤광호」가 발표된 1918년부터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이 발표된 1946년까지가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분석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식민지 조선의 남성성들은 사실상 해방 이후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안티테제인 “거세된 남성성”으로 단일화·동질화되고 마는 것이 아닐까?

(B) 『남성성의 각본들』은 제9장에서 문윤성의 『완전사회』를 다루며 “남자 없는 세계의 ‘위시두’들은 젠더가 없는 세계를 살아간다는 점에서 젠더퀴어들”(276)이라고 서술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젠더퀴어란 “태어날 때 지정받은 젠더와 다른 젠더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젠더를 규정하고 억제하기 위해 자기들의 문화가 구성한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트랜스젠더와 유사한 의미로, ‘성전환’ 없이 젠더 규범에 저항하는 사람”(289)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이때 강조점은 젠더퀴어가 그 사회의 젠더 규범과 반목한다는 데 놓일 것이다. 그렇다면 ‘에이젠더(agender)’가 규범인 사회에서 ‘에이젠더’로 사는 것이 과연 젠더 규범에 저항하는 것인지에 대해, 즉 완전사회의 위시두를 일괄적으로 ‘퀴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되물어야 한다. 오히려 완전사회에서 ‘퀴어’로 존재하는 이는 그 문화의 젠더 규범과 전혀 다른 젠더 관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수면여행자 ‘우선구’인 듯하기 때문이다. 이는 퀴어 역사기술이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현재주의(presentism)’의 문제, 이를테면 퀴어에 대한 현재의 이해 방식을 과거의 성적 실천이나 존재 방식에 그대로 투사함으로써, 당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러한 성적 실천이나 존재 방식이 가지고 있던 의미에 대한 면밀한 탐구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⁹를 우회적으로 언급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다.¹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여기 ‘우리’의 이해 방식에서 ‘퀴어’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행위가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는 전혀 ‘퀴어’하지 않은 상황이 분명 존재하며, 그렇다고 할 때 ‘퀴어’는 언제나 그 사회의 젠더 질서와 권력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특정한 위치이지, 선형적이거나 본질적인 실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다.

(C) 『남성성의 각본들』은 제9장과 제10장을 통해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초남성성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실제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승인된 것과 초남성성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한다(294). 내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여기에서 초남성성은 “권위주의적 국가 체계”의 수립을 가능케 한, “유교적 전통에서 남성다움으로 간주되는 도덕성, 체면, 엄격함, 책임감과 같은 관념들”을 가리키는 듯하다(261). 그러나 당시 “한국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이자 보호하는 자로서의 초남성성은 사실상 불가능”한바, “도덕성, 체면, 엄격함, 책임감과 같은 남자다움은 ‘모리배’ (…) ‘사바사바’ (…) ‘와이로’ (…) 등으로 대체”되는데, 이렇게 대체된 특성들이 바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간주되는 듯 보인다(293-294). 그런데 코넬이 지적하듯이 남성성의 헤게모니적 정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완벽히 체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이처럼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9 이와 관련해 잭 헬버스탐(Jack Halberstam)은 “현대의 이해를 단순히 과거로 투사하는” 현재주의의 함정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에서 얻은 통찰을 과거의 어려운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도착된 현재주의(perverse presentism)’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주디스 헬버스탐, 유강은 역, 『여성의 남성성』, 이매진, 2015, 88쪽.

10 물론 허윤은 현재주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분명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언어로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직접 말하기도 한다. 허윤, 앞의 책, 134-135쪽 참조.

많은 남자들이 “가부장적 배당금, 곧 전반적인 여성 종속의 결과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얻는 이익을 누”린다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공모적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마련해 놓고 있다.¹¹ 그렇다면 제10장에서 여장남자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들이 비판하는 ‘사장족’의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아니라 실은 ‘초남성성=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가부장적 배당금을 챙기는 공모적 남성성인 것이 아닐까?¹² 저자는 「남자 기생」이 비판하는 남성성이 “교류를 위해 여성을 교환하고 거래하며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종류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고 분석한다(313). 그런데 영화의 대사는 기실 이러한 여성 거래나 형제들의 공동체 자체보다 그것이 ‘돈’을 통해 매개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결국 ‘가정에 헌신하는 충실한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절제나 건전한 가족 질서 따위를 강조했던 박정희 체제의 ‘초남성성=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공명하는 듯 보인다. 『남성성의 각본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종속적·주변적 남성성들 간의 관계를 치밀하게 추적하는 반면, 마찬가지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지배적 허구”를 작동시키는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공모적 남성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한국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더욱 정치하게 역사화하기 위해서는 공모적 남성성이 어떻게 저항을 순치시키는지, 그리하여 특정 판본의 남성성이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어떻게 복무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허윤의 『남성성의 각본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복수적 남성성들의 상호작용과 역학관계 속에서 발명된 역사적 구성물이며, 그것이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바로 그 이유에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해소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허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탈자연화하는 과정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압력

11 R. W. 코넬, 앞의 책, 127쪽.

12 이와 관련해, 헤게모니를 가진 남성의 특성이 자동적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등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장족’의 행태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정치”의 “필수 요소”인 “모범적 남성성들의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점 역시 주목을 요한다(위의 책, 313쪽).

에 짓눌려 있던 다기한 남성성들을, 그리고 퀴어한 역사적 실천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인다. 이는 한국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자명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뿐더러, 실은 매우 허약한 기반 위에서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변화’의 바통은 우리에게 건네졌다. 바통을 이어 받은 우리는 실천적 차원에서 지금-여기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지금-여기의 젠더 질서로부터 얼마나 멀리 달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도착한 그곳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질문은 이어져야 하고, 변화는 이루어져야 한다.